

인종적 혐오주의, 네오나치즘 공포 재현에 흔들리는 크로아티아

김철민 교수
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대학

■ 주요 내용

- 크로아티아 거주 유대인 커뮤니티 단체는 정부 주최의 ‘홀로코스트(유대인 대학살, Holocaust) 추모 행사’ 참여를 거부한다고 발표함.
- ‘나치 수용소 해방 70주년’을 맞아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들은 극우 민족주의와 인종주의의 재부상을 분명한 어조로 경계함.
- 현재 크로아티아 내 극우 민족주의 행보는 소수 민족의 공포와 불안감을 극도로 자극하고 있으며, 브렉시트 구체화로 인해 유럽 내 인종적 혐오주의, 극단적 민족주의가 그 힘을 얻어가고 있음.

1 이슈 현황

☒ 크로아티아 거주 유대인 커뮤니티 단체는 정부 주최의 ‘홀로코스트(유대인 대학살, Holocaust) 추모 행사’ 참여를 거부한다고 발표함.

- 지난 4월 11일, 크로아티아에 거주하는 유대인 커뮤니티는 크로아티아 정부가 네오나치(Neo-Nazi) 단체의 공개 활동을 방조한다고 비난하면서, 4월 15일 정부 주최로 야세노바츠(Jasenovac) 수용소에서 열릴 예정이던 ‘홀로코스트 추모 행사’ 참여를 거부한다고 발표함.
 - 이와 함께 이 단체는 민족주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크로아티아 정부가 그동안 여러 차례 극우 민족주의자들의 활동과 인종주의, 나치주의의 부활을 묵인하였다고 비판하면서 자체적으로 추모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.
- 유대인 단체의 분노는 지난 3월 크로아티아와 이스라엘 간 축구 경기에서 크로아티아 축구팬들이 친(親)나치 슬로건을 외친 것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서 촉발됨.
 - 이에 대해 민족주의적 성향이 덜한 크라바르-카타로비치(Kolinda Grabar-Kitarovic, 1968~ . 재임 2015.2. ~) 크로아티아 대통령은 “크로아티아 사회의 핵심 가치는 유대인 학살을 추모하는 데 있으며, 모든 국민은 인종적 민족주의를 벗어나 그 가치를 중심으로 한데 통합해야 한다.”고 역설함으로써 유대인과 크로아티아 내 소수 민족을 달래고자 함.
 - 하지만 유대인 단체의 비판에서처럼 극단적 성향을 드러내는 크로아티아 내 우익 단체들의 이러한 행태는 이미 수차례 국제 사회의 관심 대상으로 부각됨.
- 2015년 7월 13일, 홈경기로 치러진 이탈리아와의 ‘유로 2016’ 예선에서 크로아티아 민족주의자들은 경기장 잔디 위에 나치를 상징하는 하켄크로이츠(Hakenkreuz) 문양(역만자, 卐)을 새기기도 함.
 - 이에 크로아티아 축구 대표팀은 승점 1점이 삭감되고, 이 경기를 포함 홈 2경기를 무(無)관중으로 치르는 징계를 받음.
 - 사건이 일어난 스플리트(Split) 스타디움에선 ‘유로 2016’ 예선을 치르지 못하는 징계와 함께 10만 유로(약 1억 2,000만 원)의 벌금이 부과됨.
- 2015년 3월, 노르웨이와의 5차전에서도 크로아티아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인종차별적인 구호와 함께 화염을 경기장에 내던져 징계를 받기도 하였음.
 - 이 사건으로 크로아티아 축구대표팀은 유럽축구연맹(UEFA)으로부터 무관중 경기와 5만 파운드(약 8천만 원)의 징계를 받음.

- 유럽축구선수권 등 여러 국제경기에서 과거 군국주의 악몽이 재등장하자, 크로아티아 네오나치의 활동은 유럽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 전역을 들끓게 함.
 - 특히 유럽축구연맹이 크로아티아를 유로 2016 대회 예선에서 강제 탈락시키는 문제를 논의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기도 함.
 - 이에 크로아티아 축구협회는 “이번 일은 크로아티아 축구계뿐만 아니라 크로아티아 모든 군인이 부끄러워할 일”이라며 사과하였고, 뒤늦게 크로아티아 정부 역시 사과해야 했음.

2 원인 분석

☒ ‘나치 수용소 해방 70주년’을 맞아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들은 극우 민족주의와 인종주의의 재부상을 분명한 어조로 경계함.

- 2015년 4월 ‘나치 수용소 해방 70주년’을 맞아 전 세계 각국에서 기념행사가 열린 가운데, 독일과 프랑스 정상들은 나치 강제수용소가 설치되었던 지역을 방문하여 희생자들을 추모하였음.
- 더불어 그들은 극우 민족주의와 인종주의가 재부상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명한 어조로 경계함.
 -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은 26일 프랑스 알자스 지역의 나츠바일러 슈트루트호프(Natzweiler-Struthof) 나치 수용소를 찾아 프랑스 내에서 점차 그 세력을 확장해가고 있는 인종 차별주의와 반(反)유대주의를 경계하였음.
 - 더불어 그는 “만일 국제사회가 지금처럼 극우 인종주의자들의 목소리를 방조한다면, 과거 2차 대전 때와 같은 최악의 인종 학살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.”며 경고함.
 - 실제, 프랑스에서는 극우 정당 부상으로 2014년 한 해에도 프랑스 거주 유대인 50만 명 중 7,000여 명이 이스라엘로 이주하였음.
 - 더불어 2015년 1월에는 이슬람 성전주의자들이 샤를리 에브도(Charlie Hebdo) 주간지를 테러하는 등 반(反)유대주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음.

☒ 크로아티아 야세노바츠 수용소에서도 피수용자 600명의 탈출 시도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개최됨.

- 국제사회의 ‘나치 수용소 해방 70주년’과 때를 맞추어 크로아티아 야세노바츠 수용소에서도 피수용자 600명의 탈출 시도 70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되었음.
 - 작년에 이어 올해 행사에서도 유대인 단체는 정부 초청을 받았지만, 최근 불거지고 있는 극우 민족주의적 발언들과 여러 사건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조치는 유대인의 분노를 낳음.

- 실제로 이번 유대인 커뮤니티의 크로아티아 정부에 대한 비판과 극우 민족주의적 행태에 대한 단속 요청은 유대인 외에도 세르비아인 등 이미 오래전부터 축적되어온 여러 소수 민족의 불안감의 표현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음.

야세노바츠 수용소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‘크로아티아의 아우슈비츠’로 불렸음.

- 이번에 유대인들이 행사 참석을 거부한 야세노바츠 수용소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을 포함하여 수십만 명의 세르비아인, 집시 등이 학살당했던 곳임.
 - 당시 히틀러 편에 섰던 극우 정권인 우스타샤(Ustaša)에 의해 크로아티아 내에는 야세노바츠를 포함해 아우슈비츠와 같은 수용소 수십 개가 설치되었음.
 -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박물관에 따르면, 야세노바츠 한 곳에서만 세르비아인, 유대인, 집시 등 10여만 명이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됨.
 - 또한 공식 통계에 따르면, 2차 대전 동안 우스타샤에 의해 정교를 믿는 세르비아인 65만 명과 유대교의 유대인 5만 명 등 총 70만 명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됨.

크로아티아 우스타샤 정권은 ‘비(非) 가톨릭 세력에 대한 인종 청소’라는 종교적 동기로 유대인과 세르비아인을 학살함.

- 당시 가톨릭 민족주의를 지향하던 우스타샤 정권은 가톨릭 교구와 매우 밀접한 연관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음.
 - 우스타샤 정권은 가톨릭으로 전향할 것을 압박하며 다른 종교 세력에 대해 인종 청소를 시작했고, 이는 대학살의 주요 동기가 되었음.
- 1998년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정부 보고서를 통해 2차 대전 기간 중 교황청과 크로아티아 나치 괴뢰 정부 간 협력관계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기도 했음.
 - 세계유대인회의(WJC)의 주장이 담긴 당시 보고서에는 2차 대전 기간 중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에 공식 진출해있던 교황청이 이와 같은 대량 학살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, 우스타샤 정권을 지지했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.
 - 더불어 대전 말기 유대인과 세르비아인을 학살하고 획득한 대량의 금괴를 활용한 우스타샤 정권 관계자들의 탈출에 로마 교황청이 도움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 역시 제기됨.

3 전망과 시사점

▣ 현재 크로아티아 내 극우 민족주의 행보는 소수 민족의 공포와 불안감을 극도로 자극하고 있음.

- 현재 크로아티아 내 극우 민족주의 목소리와 행동이 구체화됨에 따라 이미 지난 시절 민족 간 갈등과 내전, 그리고 대량 학살을 경험하였던 크로아티아 내 유대인과 세르비아인 등 소수민족의 공포와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음.
 - 실제로 EU의 소수 민족 기본법에 따라 전체 인구의 30% 이상의 소수 민족 거주지에서는 소수 민족어 교육 허용, 공식 문서와 도로 표지판 등에서의 소수 민족어 병행 등이 시행되어야 함.
 - 그러나 이에 대한 크로아티아인들의 반발이 점차 심해지고 있고, 심지어 소수 민족어로 표기된 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사건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임.
- 크로아티아 내 소수 민족의 민족주의자들이 제기하는 일부 사례는 크로아티아 내 소수민족의 공포심을 더욱 자극하고 있음.
 - 연방 이탈을 위한 유고 내전 중 채택된 크로아티아 공식 화폐인 쿠나(Kuna)와 또한 과거 2차 세계대전 중 극우 정권인 우스타샤에 의해 채택된 화폐라고 주장하고 있음.
 - 더불어 빨간색과 흰색이 교차되는 크로아티아 국기 역시 우스타샤 정권의 대표적 상징물이었던 점을 들어 소수민족을 자극하고 있음.

▣ 브렉시트 구체화로 인해 유럽 내 인종적 혐오주의, 극단적 민족주의가 그 힘을 얻어가고 있음.

- 이민자 급증, 그리고 이로 인한 일자리 문제로 인해 영국의 EU 탈퇴, 즉 브렉시트가 구체화 됨.
- 이에 따라 EU 역내는 물론 유럽 전역에서 인종적 혐오주의와 극단적 민족주의가 점차 그 힘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며, 이러한 현상은 단지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확대되고 있음.
 - 한국의 경우에도 지난 2014년 6월 그리스 대(對) 일본 경기에서 일본 응원단이 전범기인 욱일기를 얼굴 전체에 그린 채 응원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하였음.
- EU의 일원인 크로아티아에 있어 브렉시트 여파와 극우 인종주의의 확산은 그저 회피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임.
 - 2013년 EU에 비로소 가입한 크로아티아는 민주 사회와 타 민족을 향한 톨레랑스(Tolérance, 관용) 성숙도가 서유럽에 비해 여전히 낮은 것이 사실임.
 - 이러한 점이 바로 우리가 20세기 말기나 긴 민족 간 내전을 경험한 크로아티아에 불어오고 있는 극단적 인종주의 바람에 주목하는 이유임. **EMERiCs**

출처

BBC News, "Jasenovac: Croatia remembers Nazi death camp victims", 2016. 4. 22,

<http://www.bbc.com/news/world-europe-36117372>

BBC News, "Hollande warns racism 'still here' as he visits WW2 camp", 2015. 4. 26.

<http://www.bbc.com/news/world-europe-32474814>

DW, "Croatia docked one point, fined for swastika symbol", 2015. 7. 23

<http://www.dw.com/en/croatia-docked-one-point-fined-for-swastika-symbol/a-18604625>

Sunsentinel, "INTERNATIONAL: Croatia's Jews to boycott official Holocaust commemoration", 2016. 4. 11,

<http://www.sun-sentinel.com/florida-jewish-journal/jj-croatia-s-jews-to-boycott-official-holocaust-commemoration-20160411-story.html>

The Jerusalem post, "Mass grave of history: Vatican's WWII identity crisis", 2010, 2, 22,

<http://www.jpost.com/Features/In-The-spotlight/Mass-grave-of-history-Vaticans-WWII-identity-crisis>